

## 금속노조, 단양에 ‘노동자 학교’ 건설 첫 삽

### 20일, 금속노조 교육연수원 기공식 열어 ... 노조 자력으로 짓는 국내 최초 노동연수원

금속노조가 9월 20일 오후 단양 금속노조 교육연수원 터에서 기공식을 열고 본격 건립공사에 들어갔다.

충북 단양군 단성면 대잠리에 터전을 잡은 금속노조 교육연수원은 전체 대지 2만9천5백㎡, 건물면적 2천7백㎡ 규모로 짓는다. 이날 기공식에 금속노조 임원과 단양 주민, 건설노조 단양지회 등이 함께 자리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기공식 건립사를 통해 “금속노조는 오랜 토론과 준비 과정을 거쳐 드디어 교육연수원 건립의 첫 삽을 떴다”라며 “오늘은 금속노조 역사상 매우 뜻깊은 날”이라고 감격어린 소회를 밝혔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노동조합이 자체 예산으로 교육연수 공간을 짓는 국내 최초 사례”라며 “팔백 명이 들어가는 대강당과 성인 이백 명이 묵을 숙박시설을 갖겠다”라고 자부심을 나타냈다.



김호규 위원장은 “금속노조 교육연수원은 금속노조 활동의 주춧돌이자 활동가 양성의 근거지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보였다. 김호규 위원장은 “단양에 세우는 ‘노동자 학교’에서 노동자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노동자 의식을 높이는 교육을 조합원들과 함께 만들겠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금속노조 교육연수원 건립은 지난 2005년 15만 금속 산별노조 출범 당시 제출한 ‘산별노조 발전전략’ 가운데 하나다. 노조는 교육연수원 건립 목표로 ▲노동조합 간부와 활동가 양성 ▲새로운 산별노조 교육체계 수

립을 결정했다. 금속노조는 이를 위해 2006년 18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교육원 토대 마련을 위한 특수목적기금 설치를 결의하고, 매년 조합비 1%를 적립해왔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교육연수원의 쉼터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노조가 조합원 교육, 간부양성, 조직진단, 미래전략 수립 등 교육연수원

에서 여러 의미 있는 사업을 수행하겠지만, 연수원의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는 조합원 쉼터 역할”이라며 “뛰어난 자연경관 속에서 노동과 현장 활동의 고단함을 씻을 수 있을 바란다”라고 기원했다.

금속노조는 조합원들이 교육과 휴식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연수원에 쉼터 공간을 마련키로 했다. 소선암 자연휴양림 등 주변 환경을 활용해 ‘차유의 숲길’과 야생화 정원을 만들 계획이다. 문화·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야외공연장과 운동 시설도 들어선다.

## 노조 11기 임원 동시선거 12월 3일부터 5일까지 투표

### 노조 130차 중앙위 열어 ... 중앙교섭 의견접근 안 승인, 찬반투표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금속노조가 9월 19일 서울 중구 정동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130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2019년 중앙교섭 의견접근 안을 승인했다. 더불어 11기 조합·지부·지회 동시선거 일정과 예산을 확정했다.

이날 노조 중앙위 결정에 따라 중앙교섭 참가 사업장들은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

지 조합원 찬반투표를 시행한다. 찬반투표 결과는 10월 4일 발표한다.

130차 중앙위 결정에 따라 금속노조 11기 조합·지부·지회 동시선거 1차 투표는 12월 3일부터 5일까지 진행된다. 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위원장 박수철은 처음 제출한 ‘1차 투표 11월 25일부터 27일 안’이 변경됨에 따라 후보

등록 마감일과 2차, 3차 투표날짜 등 세부 일정을 다시 조정해 공지할 예정이다. 선거 예산은 3억 8천 129만 4천 원이다.

노조 중앙위원들은 현장 복귀로 자리가 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광주전남지부 금효타이어지회 류석현 부지회장과 현대자동차지부 김영호 조합원을 보궐선출했다.